

설날 가정예배

예배부름 인 도 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 송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갈 이
기 도 말 은 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지난 세월을 추억하고 위로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가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의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갈 이

성경봉독 시편 84:1~12 말 은 이

말 씀 행복한 사람 말 은 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에는 축복(祝福)의 의미도 담겨있지만, 상대방의 행복(幸福)을 바라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복이 있나이다”로 번역된 “아슈레이(히)”는 “행복하여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에는 이렇듯 문화권을 넘어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서로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와 제비들도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이런 연약한 동물들도 평안을 얻을 수 있듯이 마음과 육체가 쇠약했을 때도 주님의 집은 우리에게 열려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우리는 기존의 다양한 위기와 또한 새로운 위기를 만나왔고 그로 인해 많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여러 일들로 연약해졌을 때, 주님의 집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는 것은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하시며 행복을 빌어주십니다.

② 주께 힘을 얻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행복만 찾아오지는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힘차게 복을 빌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쏟는 메마른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곳에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림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힘을 주신다고 찬양합니다. 2023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③ 주께 의지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금자리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에서 ‘행(幸)’은 ‘다행(多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3년도 큰 축복과 함께 작지만 많은 ‘다행’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고, 주께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가족들도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행복을 얻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 송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

담임목사 강용규
Rev. Kang Yongkyu